

보도시점 2023. 12. 6.(수) 배포 2023. 12. 6.(수)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제7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 개최

외교부는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제7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이하 GPEDC) 포럼을 12.5.(화)-6.(수) 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하였다.

※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결과로 2012.6월 출범한 포용적 개발 협력 협의체로, 공여국, 수원국, 국제기구, 시민사회, 비정부기관 등 다양한 개발 주체를 포괄

‘지속가능 발전을 향한 더 나은 공조, 개발효과성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우간다, 인도네시아, 스웨덴, 시에라리온, 우간다, 캄보디아, 필리핀, 콩고민주공화국 등 6개국의 개발협력 담당 기관장·차관급 인사를 포함하여 공여국 및 수원국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기업, 재단, 학계 등 전 세계의 개발협력 관련 인사 약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치적 동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현지주도개발 △시민사회역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간참여 △남남협력 △현장에서의 협력 등 개발협력 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개발효과성: 원조를 넘어 국내재원 활용, 민관협력, 남남협력 등 다양한 개발협력 활동의 효과성 제고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통합적 개념

원도연 개발협력 국장은 환영사에서 글로벌 복합위기로 SDGs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 간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개회사에서 주디스 수민와 툴루카(Judith Suminwa Tuluka) 콩고민주 공화국 기획부 장관은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접근 방식(holistic approach)이 중요하다면서, 금번 포럼에서의 논의 결과를 모든 개발주체가 정책 및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금번 제7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은 국제사회의 개발효과성 논의 성과와 도전과제를 점검하고, 수원국 개발협력 현장에서 효과적인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개발협력 주체 간 논의의 장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끝.

담당 부서	개발협력국 개발의제정책과	책임자	과장	최기천	02-2100-8131
		담당자	서기관	송현태	02-2100-8343